

기억의 골짜기.

감독: 김동현

EXT. 태영의 집 밖, 낮

태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들어간다. 그걸 보고 있는 채연

INT. 집안, 낮

현수는 자신의 집을 둘러본다

현수 (V.O)
우선 여기 적혀있는 곳으로가세요.

태영
여기가 어디죠?

현수 (V.O)
당신이 살던 집이요.

태영
여기가 내 집이구나.

현수 (V.O)
자기 집의 물건 아무거나 만져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태영은 소파에 앉아서 멍때린다.

태영 (V.O)
그래도 기억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현수 (V.O)
만약 그러시면 바깥 좀 돌아다니세요.

EXT. 집 앞, 낮

태영
아 귀찮아.

걸고 있는 현수
태영은 채연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린다.

태영
누구였지?

채연
오랜만이네.

태영
질 아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채연의 표정이 실망하는 표정으로 바뀐다.

채연
아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저는 송채연이라고 해요

송채연은 손을 내민다.

태영
이태영입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인다.

채연
그런데, 어디 가세요?

태영
주변 좀 걸을라고 나왔어요.

채연
같이 걸으실래요?

EXT. 길. 낮

채연
여기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태영은 고개를 젓는다.

채연
아... 그러시구나.

현수는 채연을 바라본다

채연
그럼 여기는...

태영이 멈춘다.

태영
근데, 저희 사이가 안 좋았나요?

채연(당황하며)
왜요?

태영
저한테 되게 무서운 목소리로 오랜만이라고 하시길래.

채연
아니에요.

태영
다행이네요.

둘은 다시 걷는다.

채연(작은 목소리로)
정말 기억 못하는 건가?

EXT. 집 앞, 오후

태영은 채연에게 인사한다.

태영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채연은 손을 흔든다. 태영이 들어가자 주먹을 쥐는다.

INT, 태영의 집. 오후

현수는 태영에게 전화를 건다.

태영
오늘 저를 알아보는 분을 봤어요.

현수(V.O)
오. 누군데요?

태영
송채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현수(V.O)
네, 그런데요?

태영
저와 사이는 안좋았던거 같아요.

현수(V.O)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영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

현수(V.O)
그러시구나. 그 분이랑 자주 다녀보시면, 뭔가를
생각 날수도 있을 거예요

태영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태영은 머리를 뒤로 젖힌다.

태영
아 모르겠다.

한달이 지났다.

EXT. 태영의 집 앞, 낮

태영
오늘도 제자리 걸음이네. 미안하다.

채연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건데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태영은 손을 흔든다.

INT. 태영의 집. 낮

태영은 소파에 누워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본다. 사진을 계속 보던 태영은 폰을 옆에 두고 고민에 빠진다.

태영

목적이 뭐지? 왜 내게 접근한거지? 돈 때문이었으면 이런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았을거야. 너는 도대체 누구야?

태영은 고민하다 식탁 위에 있는 약통을 본다.

현수(V.O)

매일 챙겨드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태어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으로 간다

태영

도움은 무슨, 별다른 변화도 없구만.

약을 먹은 태영은 두통을 호소한다.

태영

머리가 깨질거 같아.

이내 기절한다.

EXT. 아라뱃길, 밤, 꿈 속

태영 (V.O)
여긴 어디지?

태영이 고개를 돌렸다.

태영 (V.O)
저건... 나잖아? 무슨 말을 하는 중이지? 잘 안들려.
태영은 총을 겨눈다. 그 후 총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INT 태영의 집. 낮

태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다.

그때 채연에게 전화가 온다.

채연 (V.O)
여보세요?

태영
무슨 일이야?

채연
혹시 오늘밤에 같이 어디 가실래요?

태영
어디를?

채연
아라뱃길이에요.

EXT. 아라뱃길. 오후

태영은 아라뱃길에 도착했다.

태영
꿈에서랑 똑같아.

채연 (V.O)
여기에요

채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왔다.

태영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길 왜?

채연
따라오세요.

EXT. 정좌. 오후.

채연은 태영을 정좌로 데려갔다.

채연
여기가 어딘줄 아세요?

태영은 침묵한다.

채연
제 누나가 죽은 곳이에요.

태영
그렇군요.

채연
혹시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태영은 고개를 숙인다.

채연
너가 죽었어. 내 누나를.

채연은 태영에게 총을 겨눈다.

태영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채연
맞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묻고 싶은게 있어. 왜 죽인거야? 우리 누나.

태영
나도 몰라.

채연
너가 모르면 어떡하냐고?

채연은 총을 장전한다.

태영
혹시 한달 동안 정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지?

채연
생겼을 리가 없잖아.

태영
다행이네. 니가 원하던 복수, 이룰 수 있어서.

채연
마지막까지 덤덤한 척이라도 하려고?

태영
말이 많네. 빨리 썩.

태영은 눈을 감는다.

채연은 그를 쏘려 하지만 쏘지 못하고 떨어뜨린다.

채연
왜? 왜 못 쏘는거야?

태영은 땅에 떨어진 총을 든다.

태영
사람은 참 이상해. 원수에게 그 동안 정이라도 들었는지 쏘
지를 못하잖아.

태영은 정좌로 걸어간다

태영
난 사람을 죽였어. 그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왜 그
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도
허락하지를 않네.

태영은 머리에 총을 가져다 댄다.

태영
가. 잔인한거 보고 싶지 않으면.

채연
아니. 니가 죽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겠어.

태영
부탁이야. 가줘.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채연은 돌아간다.

태영
고마워

총 소리가 들린다.